

공설운동장·스포츠타운 시공사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여파

나주시 내년 도민체전 어떡하나

현재 공정률 58%…사업자 승계 등 장기화땐 반납 우려도

나주시 공설운동장 시공사인 남양건설(주)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내년 4월 나주시에서 치러질 전남도민체전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내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공설운동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남양건설(지분 51%)과 (주)아크온종합건설이 공동으로 맡아 공정률 40% 상태이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공동 도급자인 (주)아크온종합건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173억 3천 593만 원으로 이 중 51%인 57억 6천 914만 원이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사는 남양건설(지분 51%)과 (주)아크온종합건설이 공동으로 맡아 공

정률 40% 상태이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공동 도급자인 (주)아크온종합건

설에서 승계,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보증인으로 돼있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나주시가 임의 계약자를 선정,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빨라도 2~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못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치르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답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시공 참여분에 대해 시공사인 남양건설측에 포기서 요구 등 다각도의 방안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못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치르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4·4 강진독립만세운동’ 재현

지난 4일 강진읍 일원에서 열린 4·4 강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4월 4일 강진 장날에 오승남 선생을 비롯한 의사(義士) 26명의 주도로 벌어진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강진군 제공)

매주 토요일 공동마케팅·이벤트행사

곡성 ‘기차마을’ 관광형 시장으로

순천만 흑두루미 452마리 사상 최대

전봇대 제거 등 효과

우리나라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에서 올해 월동한 흑두루미(사진·천연기념물 제228호) 개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70마리를 시작으로 순천만에서 올해 겨울을 낸 흑두루미 개체수는 총 452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시작한 이래 확인된 가장 많은 수였다.

이들 흑두루미는 월동을 끝내고 최근 수십마리씩 무리지어 고향인 시베리아로 떠나기 시작했

다. 지난달 30일 오후에는 250여 마리의 많은 흑두루미가 순천만 상공을 잠시 맴돌다 떠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재 순천만 일대에는 90여 마리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체도 예년처럼 이달 초에는 모두 시베리아로 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흑두루미 개체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순천만 주변 능동지내 전봇대 280여 개를 제거하고, 철새들의 쉼터인 무는 배치와 철새 먹이주기, 지역민이 함께 한 철새 지킴이 활동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道농기원 ‘천연 살충제’ 제충국 확대 보급

높다.

천환경연구소 김선국 연구사는 "앞으로 제충국외에도 살충능력이 우수한 멸구슬나무와 식물 추출물 등을 이용해 '생명식품육성 2차 5개년 계획'의 목표인 무농약·유기재배 면적 45% 달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기동기자 song@

광양경제청, 중앙부처 등 찾아 예산확보 총력

최종만(사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업현장 방문과 국고예산 확보에 바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최 청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4개 중앙부처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한불상공회의소 등 투자유치 관련 2개 기관을 방문해 국비확보와 제도개선, 투자유치 협조활동을 펼쳤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

무역투자실장,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을 면담하고 윤촌 자유무역지역 아파트형 임대 공장 건립비 280억 원을 확보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공식 기내지인 ‘ASIANA’를 통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는 전통시장 10곳 중 1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식경제부 제 2차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